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29호 [루게 제24642호] 주제 103(2014)년 8월 17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사설

#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다

백두산바람, 혁명전통교양의 불바람이 온 나라에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조선인민군 편함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 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가 걸어간 길로 천만군인이 따르고있다. 인민군군인들과 청소년학생들, 근로단체일군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전국당책일군들이 편이어 백두산으로 향하고있다.

백두산은 조선혁명의 뿌리가 내리고 조선의 창창한 미래가 밝아온 혁명의 성지이며 조선의 혁명적기상과 불멸의 혁명정신을 함양에 안고있는 유서깊은 산이다.

오늘 백두산은 우리 인민과 온 겨레,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신념의 산악, 승리의 표대로 여세를 자리잡고있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이 백두산을 우리들끼리 땀의 신심을 가다듬고있으며 백두의 기상,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단란을 뽐내고있다. 백두산과 같은 혁명의 성산을 가지는 것은 조선의 자랑이며 민족의 자긍의 영광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과 마음은 백두산으로 끝없이 달려가고있으며 항일의 열전장을 진감하던 백두의 칼바람소리가 천만심장을 혁명열, 투쟁열로 끓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아 젊어온 역사는 우리 혁명! 백두에서 개척되어 오늘까지 승리하여온 영광첩첩 로정이며 바로 이 길이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계속 걸어나갈! 항 열연한 승리의 길, 조국변방의 길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길을 개척하신 때로부터 60년의 오랜 세월이 흘러갔다.

이 나라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역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오직 당과 수령을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따라 여세를 걸어온 영광스러운 로정이며 백두산과 더불어 우리 조국의 존엄과 영예가 온 나라에 힘있게 펼쳐진 긍지로운 행로이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침략전쟁책동도 백두의 기상과 담요로 짓부셔버렸고 사회주의건설의 시대적도 백두의 비옥한 토양에서 조창조하였다. 세기는 바뀌고 세대도 여러번 교체되었지만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피를기가 뜻이 이르고 백두의 붉은기가 변함없이

휘날리고있는 격동적인 현실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찌기 백두산으로의 답사행군길을 개척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심장깊이 절감하고있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불굴의 혁명가, 영웅적인 군대와 인민으로 키우는 혁명대학이다.

오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각별한 관심과 기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되고있다.

지난해 삼지연혁명전적지를 찾았으며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답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 3월 31일의 침략전쟁책동이 극도에 이르렀던 침예한 시기에 조선인민군 편함부대 지휘관들을 백두산전주로 불러주시고 온 나라에 혁명전통교양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도록 해주셨다. 여기에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백두의 공기로 마음을 씻고 백두의 칼바람맛을 실감하며 백두의 혁명전통이야말로 조선혁명의 영원불멸할 생명선이라는 것을 배와 살로 깊이 새기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다.

백두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고수하고 대를 이어 받아내며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겨 오시려는 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우리는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오늘의 백두산 깎개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끝없이 걸어나가야 한다.

백두의 행군길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끝까지 실현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길이다.

지금 우리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중대하고도 중요한 시기에 살며 투쟁하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의 빛나는 실연, 이것이 오늘의 우리 세대가 맡고있는 처절한 영예로운 임무이며 혁명본분이다.

오늘 우리 당이 이끄는 백두의 행군길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는 숭고한 도덕의 리의 길이며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최후승리와 잇닿아있는 영광된 길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슬하에서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고 혁명하는 법을 배우며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백두의

행군길외에 다른 길이란 절대로 있을수 없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길,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열번 바뀌어도 영원히 변할수 없는 주체의 항로가 바로 백두의 행군길이다. 이 길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2로서의 고귀한 삶이 있고 우리 조국과 민족의 창창한 미래가 있다.

어머수령님 따라 시작하고 위대한 장군님 따라 승리할것은 백두의 행군길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뜻이 이어가려는 천만군민의 신념은 억척불변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자,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로 곧바로 여세를 걸어나감으로써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갈것이다.

백두의 행군길은 우리 조국을 존엄하고 강위력한 백두산대국으로 세계에 높이 떨치기 위한 영웅적투쟁의 길이다. 백두의 행군길, 이 길에서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영예는 최상의 경지에 올라오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불패의 보루로 다져졌다. 수령을 중심으로 한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과 강력한 전쟁역제력을 갖춘 무적불승의 혁명강군, 새 세계 산업혁명의 불길드높이 기운차게 전진하는 자립적민족경제와 사회주의혁명전선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와 잠재력, 이 모든것이 백두의 행군길을 이어오는 력사적투쟁속에서 마련되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많은 나라들이 혁명의 길에서 탈선하고 역사와 진통의 순결성을 고수하지 못하면서 치욕과 불행에 겪고있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천만민을 출산하는 길임을 새기었다.

지금 우리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중대하고도 중요한 시기에 살며 투쟁하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의 빛나는 실연, 이것이 오늘의 우리 세대가 맡고있는 처절한 영예로운 임무이며 혁명본분이다. 오늘 우리 당이 이끄는 백두의 행군길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는 숭고한 도덕의 리의 길이며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최후승리와 잇닿아있는 영광된 길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슬하에서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고 혁명하는 법을 배우며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백두의

행군길외에 다른 길이란 절대로 있을수 없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길,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열번 바뀌어도 영원히 변할수 없는 주체의 항로가 바로 백두의 행군길이다. 이 길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2로서의 고귀한 삶이 있고 우리 조국과 민족의 창창한 미래가 있다.

어머수령님 따라 시작하고 위대한 장군님 따라 승리할것은 백두의 행군길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뜻이 이어가려는 천만군민의 신념은 억척불변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자,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로 곧바로 여세를 걸어나감으로써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갈것이다.

백두의 행군길은 우리 조국을 존엄하고 강위력한 백두산대국으로 세계에 높이 떨치기 위한 영웅적투쟁의 길이다. 백두의 행군길, 이 길에서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영예는 최상의 경지에 올라오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불패의 보루로 다져졌다. 수령을 중심으로 한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과 강력한 전쟁역제력을 갖춘 무적불승의 혁명강군, 새 세계 산업혁명의 불길드높이 기운차게 전진하는 자립적민족경제와 사회주의혁명전선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와 잠재력, 이 모든것이 백두의 행군길을 이어오는 력사적투쟁속에서 마련되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많은 나라들이 혁명의 길에서 탈선하고 역사와 진통의 순결성을 고수하지 못하면서 치욕과 불행에 겪고있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천만민을 출산하는 길임을 새기었다.

함께 시작된 불패의 강군건설위업은 더욱더 힘차게 전진할것이며 이 길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전백승만을 펼쳐갈것이다. 백두의 행군길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영원한 존엄과 승리, 강성대국의 길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가치를 높이 추켜들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생애로 빛나는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변함없이 이어나감으로써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반드시 이룩하여야 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과 혁명업적을 심장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가장 간고하고 준엄하였던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과 혁명정신을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대없이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 된다.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적사상을 깊이 학습하며 우리가 가는 백두의 행군길이 어떻게 개척되고 이어져왔으며 조선혁명이 어떤 침산준병들을 넘으며 전진하였는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 불우의 고전적조각들과 당원들에게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절대적리성을 깊이 체득하며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지니셨던 혁명적신념과 의지, 배양으로 단란을 헤치고 수령님과 장군님신대로 혁명과 투쟁을 밀고나감으로써 백두의 대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갈것이다.

누구나 백두산을 알고 백두의 혁명정신을 자기의 뼈와 살로 새겨야 한다. 백두산지구의 산맥들과 강줄기마다에는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이 깃들여있으며 항일혁명선열들의 피와 땀, 숭고한 투쟁정신이 어려있다. 선군조선의 혁명가라면 누구나 백두산에도 올라보고 항일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 행군하고 하며 백두의 혁명정신을 체득하여야 한다. 우리는 혁명이 사회화되고 정세가 존엄할수록 백두산에 올라 선군조선의 혁명적기상을 체득하고 백두산대국으로 신념의 칼날을 더욱 여세를 밀어내야 한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가 수령의 위대성을 알고 우리 당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항일유격대식사업기동, 생활기동을 확립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백두의 풀음으로 군복을 입고 군용밥상으로 밥도 짓고 천막에서 숙영도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의 귀중성을 깊이 새겨야 한다. 답사행군의 전 로정이 강인한 혁명정신과 불굴의 기개, 높은 조직성과 규율성, 고상한 집단주의정신을 키우고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갈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의의깊은 나날로 되게 하여야 한다. 백두산행군과 근로자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백두의 행군길을 뜻깊이 이어나감으로써 혁명전통교양의 된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혁명적인 사상공세가 벌어지는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백두의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무장투쟁사가 집대성되어있는 회고록 《시와 더불어》와 항일백두산항쟁자들의 회고담들에 대한 학습을 심화시켜나가는 등,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답사를 항구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계획적으로,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답사행군의 목적과 중요성을 똑똑히 알리우고 그들이 답사준비를 잘하도록 하여 답사행군이 현성의 귀중한 체험으로, 하나의 혁명대학을 나오는 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시련에 찬 투쟁의 길, 백두의 행군길을 개척하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온 우리 혁명의 1세대들이다. 피어난 항일정신의 나날 혁명선열들이 발휘한 투쟁정신을 자자손손 빛내이며 계승해나가는데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나감은 중요한 과업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항일혁명투사들의 사상정신세계에서 근본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항일혁명투사들처럼 침절단검의 성세, 방패가 되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목적으로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앞에는 그 누구도 모든 항일혁명투사들의 투철한 혁명적수령관, 견결한 원칙성을 절대변하지 않는 신념으로 삼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조선혁명의 명맥인 백두의 혈통을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한다. 자기자신의 사생활도 가시도 없이 오직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친 항일혁명선열들의 숭고한 품도를 귀감으로 삼고 그들을 영원히 존경할 마음으로, 불굴의 충성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백두산에서 창조된 연결복단정신, 소양책과 처장들의 결사항전의 정신은 오늘의 총진군의 힘있는 추동력이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침략전쟁책동도 백두의 기상과 담요로 짓부셔버렸고 사회주의건설의 시대적도 백두의 비옥한 토양에서 조창조하였다. 세기는 바뀌고 세대도 여러번 교체되었지만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피를기가 뜻이 이르고 백두의 붉은기가 변함없이

않는 백결불굴의 투쟁의지, 서로 돕고 이끌며 사신도 헤쳐나가는 혁명적동지애와 대중적영웅주의, 오를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숭고한 인생관과 혁명적관공주의가 온 나라에 막 차남치게 하여야 한다. 누구나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온건에 이어나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살며 싸워나가는 오늘의 조선인민혁명군대원, 백두산행의 투사가 되어야 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백두의 행군길을 뜻깊이 이어나감으로써 혁명전통교양의 된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혁명적인 사상공세가 벌어지는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백두의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무장투쟁사가 집대성되어있는 회고록 《시와 더불어》와 항일백두산항쟁자들의 회고담들에 대한 학습을 심화시켜나가는 등,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답사를 항구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계획적으로,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답사행군의 목적과 중요성을 똑똑히 알리우고 그들이 답사준비를 잘하도록 하여 답사행군이 현성의 귀중한 체험으로, 하나의 혁명대학을 나오는 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시련에 찬 투쟁의 길, 백두의 행군길을 개척하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온 우리 혁명의 1세대들이다. 피어난 항일정신의 나날 혁명선열들이 발휘한 투쟁정신을 자자손손 빛내이며 계승해나가는데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나감은 중요한 과업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항일혁명투사들의 사상정신세계에서 근본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항일혁명투사들처럼 침절단검의 성세, 방패가 되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목적으로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앞에는 그 누구도 모든 항일혁명투사들의 투철한 혁명적수령관, 견결한 원칙성을 절대변하지 않는 신념으로 삼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조선혁명의 명맥인 백두의 혈통을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한다. 자기자신의 사생활도 가시도 없이 오직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친 항일혁명선열들의 숭고한 품도를 귀감으로 삼고 그들을 영원히 존경할 마음으로, 불굴의 충성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백두산에서 창조된 연결복단정신, 소양책과 처장들의 결사항전의 정신은 오늘의 총진군의 힘있는 추동력이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침략전쟁책동도 백두의 기상과 담요로 짓부셔버렸고 사회주의건설의 시대적도 백두의 비옥한 토양에서 조창조하였다. 세기는 바뀌고 세대도 여러번 교체되었지만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피를기가 뜻이 이르고 백두의 붉은기가 변함없이

백두산에서 우리의 행군길을 지켜보고있으며 백두산발에 높이 울리던 전적의 나팔소리가 천만군민을 혁명선위에서 부르짖고있다.

모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의 행군길을 따라 끝까지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다!

#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참된 애국자가 되자

## 증산경쟁을 벌리며 기세 좋게 전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력공업, 석탄공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사회주의강성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킬데 대한

### 덕천지구관광련합기업소에서

덕천지구관광련합기업소의 탄부들이 석탄증산의 불길기를 세차게 지퍼올리며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모든 탄광에서 일선 석탄생산계획을 높이 세우고 당 및 행정경제일군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을 발동하여 수확과제는 그날로 해결하여 고수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현장에서 내려간 일군들은 탄부들과 함께 석탄도 캐고 탄차도 밀면서 길된 고리들을 앞질러가며 돌아나가고있다. 이들은 석탄증산목표수행을 위한 생산총화를 실속있게 하고 앞선 단위들에 대한 평가사업을 의의있게 진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생산자대중의 양양된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일군들은 덕천탄광기계공장의 로동자들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함있게 벌려 탄광들에 필요한 설비, 자재, 도록 확신적정치사업을 드세게 벌리고있다. 그리하여 중대형, 수출용, 대성형, 형용형의 모든 채탄중대대에서 석탄증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덕천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의 증산경쟁을 힘있게 벌리며 기세 좋게 전진하고있다. 덕천탄광 청년경, 남신경, 사창청년탄광 2경, 1경을 비롯한 탄광들에서도 당앞에 다진 석탄증산목표를 기어이 돌파할 줄 아는 열의를 안고 고대할 대책을 세우고있다. 특히 경들에서 운반수송에 대한 정비보수를 정상화하고 전자, 탄차들의 만가공을 보장하여 매일 계획보다 1.2배의 석탄을 생산하는데도 되고 있다.

### 개천지구관광련합기업소에서

개천지구관광련합기업소에서 석탄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골진을 앞세워 예비채광을 건너뛰어 마련하면서 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유리한 경매장들에 열을 집중하여 일선 탄광상황을 높여나가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부서, 과들의 성원들, 경, 채탄중대들에 대한 담당자를 내세우고 모든 일군들이 탄부들과 힘을 합쳐 석탄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하고있다.

탄광들에 내려간 일군들은 채탄중대들의 생산실태와 설비, 자재, 부속품보장정형은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탄차와 전력생산자들을 위한 살림집과 공공건물건설을 어랑전 2호발전소 조립으로 다그쳐 끝낼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을 적극 내밀고있다. 일군들은 건설장에 내려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화산신정지사업들을 힘있게 벌리며 전력생산자들이 리용할 살림집과 공공건물들을 면 후 날에도 손색이 없게 일떠세우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건설지휘부의 일군들은 건설물들의 집을 보장하기 위한 감독사업을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어랑전 2호발전소에서는 어머수령님의 유분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높이 받들고

## 삼지연읍지구에서 지열수를 찾아냈다

### 국가자원개발성 일군들과 각 도탐사대원들

국가자원개발성 일군들과 탐사공학연구소의 연구사들과 그리고 중앙물리탐사단, 남포수문지질탐사대, 량강도탐사관리국 탐사지질탐사단의 탐사대원들이 삼지연읍지구에서 지열수를 찾아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삼지연읍지구에서 지열수를 찾아냄으로써 삼지연학생소년궁전에 지열난방체계를 도입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저한 뜻을 충실히 실천하기 위한 열매가 맺어졌고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군안의 공공건물과 살림집들에도 지열난방을 실현할수 있는 기술적담보가 마련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올해 우리의 투쟁은 인민의 아량과 리상과 꿈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빛나게 장식할 대추전망과 잇닿아있는 승리의 진군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1월 삼지연학생소년궁전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삼지연 지열수탐사에 진일한것은 4월부터였다. 삼지연지구에서 지열난방화를 실현하기 위한 지열수를 찾아내

는 것은 백두산지구의 복잡한 지질구조로 하여 어려운 문제였다. 하지만 성일군들과 남포수문지질탐사대, 량강도탐사관리국 탐사지질탐사단 탐사대원들은 난관앞에서 추호의 요나 주저를 몰랐다. 이곳 일군들과 탐사대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저한 뜻을 충실히 실천하기 위한 열매가 맺어졌고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군안의 공공건물과 살림집들에도 지열난방을 실현할수 있는 기술적담보가 마련되었다.

삼지연읍지구에서 지열수를 찾아냄으로써 삼지연학생소년궁전에 지열난방체계를 도입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저한 뜻을 충실히 실천하기 위한 열매가 맺어졌고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군안의 공공건물과 살림집들에도 지열난방을 실현할수 있는 기술적담보가 마련되었다.

삼지연읍지구에서 지열수를 찾아냄으로써 삼지연학생소년궁전에 지열난방체계를 도입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저한 뜻을 충실히 실천하기 위한 열매가 맺어졌고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군안의 공공건물과 살림집들에도 지열난방을 실현할수 있는 기술적담보가 마련되었다.

삼지연읍지구에서 지열수를 찾아냄으로써 삼지연학생소년궁전에 지열난방체계를 도입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저한 뜻을 충실히 실천하기 위한 열매가 맺어졌고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군안의 공공건물과 살림집들에도 지열난방을 실현할수 있는 기술적담보가 마련되었다.

삼지연읍지구에서 지열수를 찾아냄으로써 삼지연학생소년궁전에 지열난방체계를 도입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저한 뜻을 충실히 실천하기 위한 열매가 맺어졌고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군안의 공공건물과 살림집들에도 지열난방을 실현할수 있는 기술적담보가 마련되었다.

## 살림집과 공공건물건설 적극 추진

### 어랑전 2호발전소 건설장에서

살림집과 공공건물건설의 앞장에 도청년돌격대원들이 서있다. 리더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령명을 집중하여 유지적과 종합편의시설을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와타닥 다그쳐 끝내며 이어 많은 살림집조조립과 지붕공사를 힘있게 내밀어 완공일을 앞당겨나가고있다.

기계체천련합기업소대대의 전투원들은 자재와 로력이 부족한 조건에서도 교대조직과 시공조직을 짜고들어 학교를 짧은 기간에 일떠세웠다. 성과적 자만을 모르는 이들은

살림집과 공공건물건설의 앞장에 도청년돌격대원들이 서있다. 리더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령명을 집중하여 유지적과 종합편의시설을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와타닥 다그쳐 끝내며 이어 많은 살림집조조립과 지붕공사를 힘있게 내밀어 완공일을 앞당겨나가고있다.

기계체천련합기업소대대의 전투원들은 자재와 로력이 부족한 조건에서도 교대조직과 시공조직을 짜고들어 학교를 짧은 기간에 일떠세웠다. 성과적 자만을 모르는 이들은

살림집과 공공건물건설의 앞장에 도청년돌격대원들이 서있다. 리더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령명을 집중하여 유지적과 종합편의시설을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와타닥 다그쳐 끝내며 이어 많은 살림집조조립과 지붕공사를 힘있게 내밀어 완공일을 앞당겨나가고있다.

기계체천련합기업소대대의 전투원들은 자재와 로력이 부족한 조건에서도 교대조직과 시공조직을 짜고들어 학교를 짧은 기간에 일떠세웠다. 성과적 자만을 모르는 이들은

살림집과 공공건물건설의 앞장에 도청년돌격대원들이 서있다. 리더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령명을 집중하여 유지적과 종합편의시설을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와타닥 다그쳐 끝내며 이어 많은 살림집조조립과 지붕공사를 힘있게 내밀어 완공일을 앞당겨나가고있다.

기계체천련합기업소대대의 전투원들은 자재와 로력이 부족한 조건에서도 교대조직과 시공조직을 짜고들어 학교를 짧은 기간에 일떠세웠다. 성과적 자만을 모르는 이들은

살림집과 공공건물건설의 앞장에 도청년돌격대원들이 서있다. 리더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령명을 집중하여 유지적과 종합편의시설을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와타닥 다그쳐 끝내며 이어 많은 살림집조조립과 지붕공사를 힘있게 내밀어 완공일을 앞당겨나가고있다.

기계체천련합기업소대대의 전투원들은 자재와 로력이 부족한 조건에서도 교대조직과 시공조직을 짜고들어 학교를 짧은 기간에 일떠세웠다. 성과적 자만을 모르는 이들은

## 삼지연읍지구에서 지열수를 찾아냈다

### 국가자원개발성 일군들과 각 도탐사대원들

국가자원개발성 일군들과 탐사공학연구소의 연구사들과 그리고 중앙물리탐사단, 남포수문지질탐사대, 량강도탐사관리국 탐사지질탐사단의 탐사대원들이 삼지연읍지구에서 지열수를 찾아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삼지연읍지구에서 지열수를 찾아냄으로써 삼지연학생소년궁전에 지열난방체계를 도입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저한 뜻을 충실히 실천하기 위한 열매가 맺어졌고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군안의 공공건물과 살림집들에도 지열난방을 실현할수 있는 기술적담보가 마련되었다.

삼지연읍지구에서 지열수를 찾아냄으로써 삼지연학생소년궁전에 지열난방체계를 도입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저한 뜻을 충실히 실천하기 위한 열매가 맺어졌고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군안의 공공건물과 살림집들에도 지열난방을 실현할수 있는 기술적담보가 마련되었다.

삼지연읍지구에서 지열수를 찾아냄으로써 삼지연학생소년궁전에 지열난방체계를 도입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저한 뜻을 충실히 실천하기 위한 열매가 맺어졌고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군안의 공공건물과 살림집들에도 지열난방을 실현할수 있는 기술적담보가 마련되었다.

삼지연읍지구에서 지열수를 찾아냄으로써 삼지연학생소년궁전에 지열난방체계를 도입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저한 뜻을 충실히 실천하기 위한 열매가 맺어졌고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군안의 공공건물과 살림집들에도 지열난방을 실현할수 있는 기술적담보가 마련되었다.

삼지연읍지구에서 지열수를 찾아냄으로써 삼지연학생소년궁전에 지열난방체계를 도입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저한 뜻을 충실히 실천하기 위한 열매가 맺어졌고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군안의 공공건물과 살림집들에도 지열난방을 실현할수 있는 기술적담보가 마련되었다.

삼지연읍지구에서 지열수를 찾아냄으로써 삼지연학생소년궁전에 지열난방체계를 도입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저한 뜻을 충실히 실천하기 위한 열매가 맺어졌고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군안의 공공건물과 살림집들에도 지열난방을 실현할수 있는 기술적담보가 마련되었다.

삼지연읍지구에서 지열수를 찾아냄으로써 삼지연학생소년궁전에 지열난방체계를 도입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저한 뜻을 충실히 실천하기 위한 열매가 맺어졌고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군안의 공공건물과 살림집들에도 지열난방을 실현할수 있는 기술적담보가 마련되었다.

삼지연읍지구에서 지열수를 찾아냄으로써 삼지연학생소년궁전에 지열난방체계를 도입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저한 뜻을 충실히 실천하기 위한 열매가 맺어졌고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군안의 공공건물과 살림집들에도 지열난방을 실현할수 있는 기술적담보가 마련되었다.

삼지연읍지구에서 지열수를 찾아냄으로써 삼지연학생소년궁전에 지열난방체계를 도입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저한 뜻을 충실히 실천하기 위한 열매가 맺어졌고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군안의 공공건물과 살림집들에도 지열난방을 실현할수 있는 기술적담보가 마련되었다.

## 삼지연읍지구에서 지열수를 찾아냈다

### 국가자원개발성 일군들과 각 도탐사대원들

국가자원개발성 일군들과 탐사공학연구소의 연구사들과 그리고 중앙물리탐사단, 남포수문지질탐사대, 량강도탐사관리국 탐사지질탐사단의 탐사대원들이 삼지연읍지구에서 지열수를 찾아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삼지연읍지구에서 지열수를 찾아냄으로써 삼지연학생소년궁전에 지열난방체계를 도입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저한 뜻을 충실히 실천하기 위한 열매가 맺어졌고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군안의 공공건물과 살림집들에도 지열난방을 실현할수 있는 기술적담보가 마련되었다.

삼지연읍지구에서 지열수를 찾아냄으로써 삼지연학생소년궁전에 지열난방체계를 도입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저한 뜻을 충실히 실천하기 위한 열매가 맺어졌고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군안의 공공건물과 살림집들에도 지열난방을 실현할수 있는 기술적담보가 마련되었다.

삼지연읍지구에서 지열수를 찾아냄으로써 삼지연학생소년궁전에 지열난방체계를 도입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저한 뜻을 충실히 실천하기 위한 열매가 맺어졌고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군안의 공공건물과 살림집들에도 지열난방을 실현할수 있는 기술적담보가 마련되었다.

삼지연읍지구에서 지열수를 찾아냄으로써 삼지연학생소년궁전에 지열난방체계를 도입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저한 뜻을 충실히 실천하기 위한 열매가 맺어졌고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군안의 공공건물과 살림집들에도 지열난방을 실현할수 있는 기술적담보가 마련되었다.

삼지연읍지구에서 지열수를 찾아냄으로써 삼지연학생소년궁전에 지열난방체계를 도입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저한 뜻을 충실히 실천하기 위한 열매가 맺어졌고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군안의 공공건물과 살림집들에도 지열난방을 실현할수 있는 기술적담보가 마련되었다.

삼지연읍지구에서 지열수를 찾아냄으로써 삼지연학생소년궁전에 지열난방체계를 도입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저한 뜻을 충실히 실천하기 위한 열매가 맺어졌고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군안의 공공건물과 살림집들에도 지열난방을 실현할수 있는 기술적담보가 마련되었다.

삼지연읍지구에서 지열수를 찾아냄으로써 삼지연학생소년궁전에 지열난방체계를 도입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저한 뜻을 충실히 실천하기 위한 열매가 맺어졌고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군안의 공공건물과 살림집들에도 지열난방을 실현할수 있는 기술적담보가 마련되었다.

삼지연읍지구에서



#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심화시켜 오늘의 총공격전을 적극 추동해나가자

## 새로운 기적창조의 무한대한 원천

### 북창지구단광역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북창지구단광역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은 탄부들의 심장속에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을 깊이 새겨주며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실천과 결부하여 실속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이고 희생적인 헌신입니다.》

은련합기업소가 석탄생산투쟁으로 부글부글 끓고있던 지난 7월 중순 어느날이었다.

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영훈동무는 남덕현광부의 어느 채탄 1중대의 생산실적이 처지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채탄공들이 일하는 막장에 들어갔다. 그때 채탄공들은 막장의 불리한 조건으로 하여 맥을 놓고 있었다.

당책임일군의 머리에는 그 전달 회안판공을 찾았을 때의 일이 떠올랐다.

탄광은 조건이 다른 단위보다 불리하였지만 정초부터 높은 실

적을 내고있었다. 그 비결의 하나는 이곳 당조직이 일군들과 탄부들의 가슴마다에 어버이장군님의 애국헌신의 한평생을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려온것과 관련되어있었다. 이곳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나는 오늘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에 늘 자신을 비추어보면서 애국의 마음을 가다듬고있었다.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그들의 가슴속에는 더 많은 석탄을 캐내어 어버이장군님의 명령에 다진 맹세를 지켜갈 일념이 짙게 차있었다.

바로 그것이었다.

기적창조의 열쇠는 대중의 심장에 애국의 불을 다는데 있다. 모든 채탄공들이 한의 석탄을 캐도 어버이장군님께 보고드리려는 심정으로 일하게 하자.

이렇게 결심한 당책임일군은 채탄공들에게 절절한 어조로 이야기해주었다.

—땀땀 추위로 강산이 땀땀 얼어붙었던 정월의 어느날 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다시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었다. 시간은 어느덧 새벽 3시를 가까이 하고있었다. 한 일군이 그에게 좀 쉬시옵기를 간절히 아뢰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고맙다고,

하지만 강행군길이 아닌가고 하시며 우리 인민들이 모두 잘살게 될 때 오늘을 옛날처럼 추억 하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 눈물없이 들을수 없는 그 이야기는 채탄공들의 심장을 달구어주었다.

그들은 자기들은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어버이장군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그토록 마음 쓰시던 석탄문제를 풀기 위하여 한몸이 그대로 동발이 되어 투쟁하겠다고 불을 토하듯 말하였다. 채탄공들은 교대가 끝나면 회수동발을 수집하기 위한 전루에 달려붙었다. 하여 불가능하다고 하던 7월 석탄생산계획을 전승철을 맞으며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사실에서 당위원회일군들은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심도있게 해나갈 때 대고조전군에서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남김없이 폭발시킬수 있다는것을 깨닫게 되었다.

일군들과 노동자들이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불면 불휴의 로고를 다 바치신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주의를 더 하지도 덜지도 말고 실천활동에 그대로 구현해나가게 하자.

이것이 당위원회가 김정일애국주의교양에서 내세운 목표였다. 당위원회 선전선동부일군들은 해설담화자료와 선동자료를 하나 만들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김정일애국주의를 깊이 심어주기 위한데 모를 박았다.

노보라강행군, 삼복철강행군 이야기, 한평생 조국을 떠받드는 뿌리가 되시어 자신의 모든것을 장거리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속에 마련된 과학교육의 전당들과 문화정서생활거점들, 대공강과수충합장소를 비롯한 기념비적장소들들에 대한 이야기... 생동한 사실자료들을 가지고 당일군들과 당초급일군들이 입장전후수과와 작업의 실참에 진행된 정치사업들과 탄광기동에 출생세대원들의 경제선동은 온 기업소에 김정일애국주의열풍이 휘몰아치게 하였다.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애국의 마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실천투쟁에서 타나야 한다고 하면서 교대가 따르지는 전루를 벌려냈다. 하루 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전에는 막장을 뜨지 않았다. 소대, 중대, 강동소장간 증산경쟁열풍이 일어난지속에 월계획을 훨씬 앞당겨 수행하는 골진소대, 채탄소대들이 부쩍 늘어났다.

지난 어느날 회안판공에서는 월계획수행에서 모범인 골진소대, 채탄소대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혁신자축하모임이 진행되었다. 어려운 속에서 계획을 수행하느라 힘썼다고 하는 당위원회일군들에게 탄부들은 말하였다.

—고난의 시기부터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단별솜웃을 입으시고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조국수호의 전초선들을 찾고찾으신 우리 장군님의 선공정정을 생각할 때면 일하고 일해도 성취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이곳 일군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김정일애국주의의 피와 땀으로 새겨질 때 진정한 애국의 불을 담수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절감하였다.

당사업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깃들여있는 애국심을 키워주고 불러일으키는 사업이다.

들끓는 전투현장에서 대중의 가슴속에 김정일애국주의를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켜나갈 때 얼마든지 새 기준, 새 기준을 창조할수 있다. 이것이 당위원회일군들이 찾은 교훈이다.

본사기자 손영희

### 만경대남새전문농장 초급당위원회에서

만경대남새전문농장 초급당위원회에서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단위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잘 짜고들고있다. 특히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천만군민의 심장에 애국헌신의 불을 지퍼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을 통한 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 4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준공을 앞둔 송도원초급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신 소식이 당보에 실렸을 때였다.

그날도 신문의 글줄을 경정속에 읽어내려가던 초급당비서 정완길동무는 불현듯 무릎을 치며 벌떡 일어났다. 단위사업을 혁신할수 있는 열매를 찾아야겠다.

야영소를 개건하면서 예로와

난관이 있었지만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우리가 1년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발전한다고, 이렇게 야영소를 개건해놓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런 뜻에 혁명을 한다고 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내용이 초급당비서의 가슴을 쳤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을 전해들을 때면 의례히 원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단위당사업이 잘되고있는가를 새겨보고 사업을 혁신할 방도를 찾고있는 초급당비서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1년 고생, 10년 발전! 이것을 중자로 틀어낸 초급당비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이신 뜻을 당사업실천에 구현해나가기 위해 곧 농산제1작업반으로 향했다.

그때 동창에서는 농산제1작업반마을을 현대적으로 꾸리는 사업을 결의목표에 반영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있었다. 문화주택을 많이 지으며 농민들이 좋은 집에서 살도록 하라는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에 주신 간곡한 유훈이다.

실참에 초급당비서는 건설에 참가한 농업근로자들과 자리를 같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을 들리던 초급당비서는 이렇게 호소했다.

—우리가 고생하는것만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몸 강고로

태우는 열렬한 애국자가 되자! 농업근로자들이 받은 감동은 컸다. 그들은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선군혁명과 천만리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애국헌신에 걸음도 마음도 맞추어가며 심장의 피를 끓여냈다. 애국의 한마음안고 너도나도 떨쳐나 짧은 기간에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수심동의 살림집을 훌륭히 꾸려놓았다.

농업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강행군길에 발걸음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 초급당위원회는 작업반 농업과 학기기술지식전선실들에 원수님의 혁명활동내용을 보여주는 직판판을 만들었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고있다.

초급당일군들뿐이 아니다. 판리위원장 김영복동무를 비롯한 농장의 모든 일군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발걸음에 전진의 보폭을 맞추며 농산제1작업반마을에 애국의 열정을 바쳐가도록 농업근로자들을 이끌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내용을 거울로 삼고 김정일애국주의를 높이 발양해나가기로 농장일군들과 농장주요사업에 참신하게 벌려나가는 이곳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은 좋은 결실을 안아오고있다.

본사기자 전경서

## 착상보다 무엇을 먼저 보았는가

### 대안중기계열합기업소 대상설비종합직장 초급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보석이 땅속에 묻혀있어도 빛을 잃지 않는것처럼 애국의 마음은 그것이 비록 크지 않아도 귀중한것이며 언제나 아름답고있습니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 발전설비 안내날개 가공을 대형선반만이 아니라 일반선반으로도 할수 있게 없었는가 하는 착상을 기대공 김봉혁동무가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도리머리를 저었다.

하지만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은 초급당비서 리명환동무는 결코 가볍게 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착상하게 된 동기가 가슴뜨거웠다.

안내날개 가공공제는 아름다운 대형선반은 한대밖에 없는데 한대도 안타까와하였다. 기대공 김봉혁동무는 그것을 자기

일처럼 여기며 직장에서조차 모자라 집에 들어가서까지 방도를 진지하게 모색하였다. 그러던중 불현듯 엉뚱하게 착상하게 된것이었다.

기대공의 그 착상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토록 마음쓰시는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려는 보석같은 마음이 놓여있었다.

(비록 일부 사람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착상이라고 해도 그 바람에 놓여있는 애국의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마음앞에 사람들은 머리를 숙일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초급당일군은 그의 착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가능성을 파고들었다. 그의 마음속에 간직된 애국의 소중한 뜻을 튀워주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주었다.

종합직장장 김철호동무와 토의한데 기초하여 필요한 기술철회도 여러차례 마련하였다.

거듭되는 협의과정에서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놓았다. 일련의 기술적조작을 하면 일반선반에서도 안내날개를 얼마든지 가공할수 있다는 답이 나왔던것이다.

마침내 기대공의 착상은 생산실현에 받아들여지고 큰 은을 냈다.

일반선반으로 안내날개 가공을 진행한 결과 생산실적이 두 배로 정중 뛰어올랐으며 직장에서서는 아름다운 파계를 계획했던 날자보다 훨씬 앞당겨 수행하게 되었다.

착상으로 얻어진 경제적실리도 큰것이였지만 초급당일군에게는 기능공의 가슴속에 간직된 애국의 마음이 창조적 열매로 주렁거리는 더욱 기뻐했다.

그 사실을 통하여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직장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종업원들에게 애국의 마음으로 심장을 불태우면 누구든지 큰일을 해제낄수 있다는것을

실물로 깨우쳐주었다.

사람들속에서는 누가 보진말고, 알아주진말고 사회와 집단, 일터를 위한 좋은 일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해져갔다.

직장장 김철호동무를 비롯한 대형기계직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은 새로운 지구를 창조하여 라빈가공에서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8m타원기대공 립형동무는 한달사이에 6개의 고정날개를 가공하는 위훈을 세웠다.

흔히 일군들은 어떤 착상이나 기술혁신의 실마리가 되는 기발한 착상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착상에 대하여 먼저 평가하곤 한다. 그러나 그 착상에 깃든 애국의 마음을 먼저 보고 대중의 애국심을 불꽃시키는 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가는 이곳 초급당일군들의 사업은 본받을만 하다.

본사기자

### 소중한 꿈을 키워주는 직판물

### 소속희해주교원대학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추억이 어린 기숙사의 호실에 들어서서 벽과 창문, 비품 등 내부의 모든것을 보고 또 보는 그의 눈빛은 뜨거웠다.

《섬포교생활의 나날에 한시도 잊을수 없었던 기숙사생활입니다.》

그 사실을 통해 초급당일군은 서해의 외진 섬분교들에 자원진출한 졸업생들의 장한 정성이 얼마나 소중한 체험과 정서가 놓여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대학시절에 기숙사생활을 해본 초급당일군은 대학생들의 구체적인 생활에 발을 붙이고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심화시켜나갈 공리를 하였다.

(자기 집들안과 같은 기숙사에서 애국의 꿈이 더욱 소중히 간직되게 하자.)

초급당비서 김창두동무의 생각은 학장 윤옥란, 교무부학장

대하 졸업생들이 자원진출한 서해 외진 섬들의 분포 정형을 알수 있게 하는 직판물이다.

졸업생들의 긍정적인 소행을 통하여 대학생들에게 애국의 꿈을 키워주기 위하여 기술인 이곳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창조적인 사색이 여기에 비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애국주의는 주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애국은 자기 집들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해, 최전연섬마을의 어느 분교에 진출한 리봉희동무와 대학생들사이에서 뜻깊은 상봉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모교를 떠나기에 앞서 그는 쉼 일인지 대학기숙사에 좀 들러보겠다고 하였다.

동무들과 함께 생활하던 정은

장명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렇게 되어 기숙사현관의 한 벽면에는 이 대학 졸업생들이 자원진출하여 후대교육사업을 진행하는 서해의 외진 섬들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게 하는 특색있는 직판물이 게시되게 되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섬분교에 자원진출한 졸업생들이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내용들도 직판물에 담았다. 그리고 이런 물음을 두드러지게 새겼다.

《섬분교로 진출할 다음차례의 졸업생은?》

그 직판물은 수백명 기숙사생들의 생활의 한 부분으로 되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숙사현관을 드나들면서 대학생들은 그 직판물을 눈에 익히고 섬분교로 자원진출해간 졸업생들에

대한 이야기꽃을 지루 피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최대 열점지역에 위치 한 서해안의 섬마을대들을 찾으신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그 직판물앞에서 흥분과 격정을 달래지 못하였다.

대학생활은 그 직판물에 소중한 애국의 꿈을 심었다. 졸업생들처럼 외진 섬분교에도 달려나가 조국의 미래를 키워는 밑거름이 될 결의들을 다지었다. 미교과와 섬분교들은 멀리 떨어져있어도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로 이어졌다.

올해에도 대학에서는 박미경, 현생애, 김은혜동무를 비롯한 졸업생들이 서해의 외진 섬분교들에 자원진출하는 긍정적인 소행이 발표되었다.

꿈을 심어준 기숙사의 직판물은 이곳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이 대학생들속에서 애국의 일념을 북돋아주는 사업을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얼마나 참신하게 하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채인철

## 선군혁명명령도의 상징으로 솟아 빛나는 철령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탁월한 선군혁명명령도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역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었습니다.》

철령, 선군혁명명령도의 상징으로 높이 솟아 그 이름 빛나는 철령이다.

오르면서 40리, 내리면서 40리나 되는 험준한 명령, 그 굽이굽이에 비껴흐르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새겨 보는 이 나라 천만군민의 가슴은 뜨겁다.

주제 85(1996)년 3월, 조국이 류태없이 엄혹한 시련을 겪고있던 시기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철령을 넘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이 다시금 가슴뜨겁게 되새겨진다.

자주적근위병이 되느냐 아니면 도에가 되느냐 하는 역사의 갈림길에서 선군의 가치를 더 높이 드신 위대한 장군님, 역사의 그날 장군님께서서는 최고사령관이 전진길을 알자면 직접 차를 몰아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친히 운전대를 잡으셨다. 구배가 심한데다가 때

늦게 배린 진눈까비로 미끄러운 명령을 넘으시며 조국수호의 거룩한 자욱을 남기시던 어버이장군님의 근엄하신 모습을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잊을수 없다.

어느태 태양절에는 우리 수령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던 병사들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 고, 군인들이 명령을 어떻게 최선을 찾아가야 마음이

놓일것 같다고 하시며 또다시 철령으로 선군혁명명령도의 길을 이으신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최고사령관이나 장병들이나 다 혁명의 한길에 나선 혁명전우들이라고 하신 그날의 우리 장군님의 가르침은 얼마나 천만의 가슴을 울려주고있는것인가.

무엇은 여름철도 마다하지 않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령을 넘으신 주제 90(2001)년 7월... 실로 굽이굽이 철령을 넘고넘으시며 최전방초소들을 찾으시고 혁명의 붉은기와 사회주의를 지켜내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천만군민은 영원히 잊을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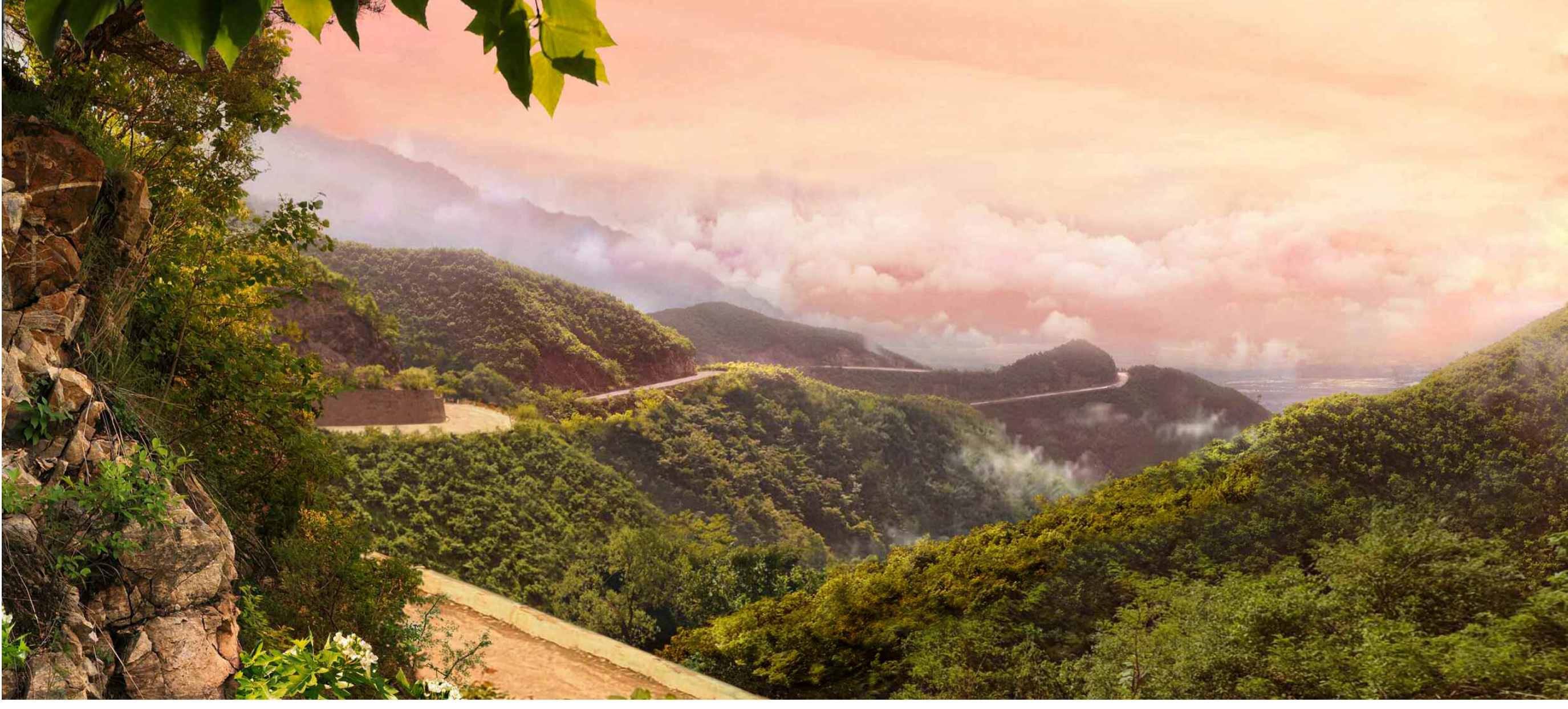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대를 지켜주시고 선군으로 빛내어

주신 우리의 사회주의이다. 선군혁명명령도의 상징인 철령을 바라보며 총대의 귀중함을, 창조와 비약의 제일가는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더욱더 뼈저리게 절감한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다.

철령이때 펼쳐진 사파바다의 그윽한 향기를 느끼면서, 날이 갈수록 커지는 행복을 배우로 절감하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

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령도의 길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신념과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길, 강행군길에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폭을 맞추며 폭풍쳐내달리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종훈



# 조국의 북변에서 세차게 라오르는 조선속도창조의 불길

## 3월 5일 청년광산에서

### 유훈관철의 나날에 현대적인 유색금속생산기지로

조국의 북변에 위치한 3월 5일청년광산에서 조선속도창조의 장엄한 포성이 또다시 높이 울려다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광산에 주신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여 이곳 일꾼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새로 일떠세운 폴리브렌공장이 자기의 조업을 선포한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대고조선투쟁마다에서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나래지고 있는 시기에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할 첨단수준의 유색금속생산기지를 조업한 것은 참으로 자랑할만 한 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뿌려놓으신 귀중한 씨앗들을 잘 가꾸어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야 합니다.》

생산능력이 있어서나 현대화 수준에 있어서나 당당히 첨단을 자랑하는 생산공정들의 편이든 조업과 더불어 북변의 이백만 집자리 광산은 어제날의 광물생산기지로부러 현대적인 유색금속생산기지로의 뚜렷한 전변의 큰걸음을 내딛고있다.

주제 99(2010)년 5월 능력확장전선광장 조업, 주제 101(2012)년 10월 현대적인 제련소 조업, 주제 103(2014)년 8월 폴리브렌공장 조업.

바로 여기에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어버이장군님의 유훈관철투쟁속에서 최근년간 호화명에서 편이 일어나 다계단변

이 함축되어있다.

그 하나하나 큰 공적건설과 맞먹는 방대한 공사였다. 그러나 광산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대해 맡겨진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 전문건설단위의 도움이 없이 자체의 힘으로 모든 대상들의 건축공사와 설비조립, 시운전까지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오늘도 광산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어버이장군님께서 주제 97(2008)년 1월 눈보라날리는 북방의 추위를 뚫고 자기들의 일터를 찾아주신 날을 마음속에 소중히 안고있다.

영광의 그날 우리 장군님께서 광산을 추켜세워 생산능력을 고난의 행군시기의 수배로 늘린 일꾼들과 로동계급의 수고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대로 선광능력을 대담하게 끌어올릴데 대한 강력적과업을 제시하시었다.

어버이장군님의 현지말씀을 하루빨리 관철하고 승리의 보고를 올리자!

누구나 이런 총정의 각오를 안고 선광능력을 2.5배로 확장하기 위한 결사전에 떨쳐나섰다.

지난 시기 호수자리인것으로 하여 피내고피내여도 끝이 없이 밀려내리는 강압속에 선광장의 콩크리트기둥 하나를 박기 위해 백수십m의 강량을 피내야 하였다. 공사의 전기간 돌격대원들은 물론 광산의 가두녀성들도 자기가 하루에 몇시간 자고 몇시간 일하는지 가늠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의 마음속에 품어

환경보호측면에서나 어느 모로 우월한 제련법을 무조건 성공시킬 그들의 민족자존의 정신력앞에서 불가능이란 없었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첨단수준의 제련소를 일떠세우겠다고 열렬히 토로하는 광산행 일꾼들의 진정에 김책공업종합대학 금속공학부의 교원, 연구사들이 적극 호응해나섰다.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이 합쳐지는 속에 우리의 실정에 맞는

첨단수준의 제련공정설계가 완성되었다. 이런 충분한 기술적 준비밑에 광산에서는 2011년 여름부터 본격적인 제련소건설 공사에 달라붙었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그들의 결사관철의 정신력은 어버이장군님께서 서거하시었다는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접한 후 더욱 세차게 분출되었다. 피눈물의 언덕에서 어버이장군님께 지는 속에 우리의 실정에 맞는

주제 99(2010)년 9월 외국방문의 길에서 쌓인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북방의 험한 령을 또다시 넘어서어 광산을 찾아주신 어버이장군님, 당과 수령을 말로써가 아니라 오직 자랑찬 실적으로 받들어갈 일꾼들과 로동계급의 불타는 마음은 현대적인 유색금속생산기지를 일떠세울데 대하여 주신 어버이장군님의 이날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나날에 더욱 높이 발휘되었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첨단수준의 능력이 큰 제련소들! 광산의 책임일꾼들은 아직 우리 나라 제련공업분야에서 실현하지 못한 높은 목표를 내걸었다. 그들이 내세운 첨단은 목표를 놓고 불가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하지만 어버이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최상의 수준에서 관철할 총정의 일념으로 일꾼들은 첨단은 그 길을 앞장서 헤쳐나갔다. 현대화 면에서나 경제적실리 면에서나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받들어 감 심장의 맹세로 가슴 불태우며 광산의 일꾼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장군님의 유훈관철투쟁에 총력기해나섰다. 그리하여 방대한 제련소건설을 1년 남짓한 기간에 끝내고 첨단은 초행길을 성과적으로 돌파하는 기적들을 안아오고야말았다.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자, 이런 총정의 각오를 안고 광산의 일꾼들

과 로동계급은 그 다음해 겨울 또다시 폴리브렌공장건설에 달라붙었다.

말로써가 아니라 오직 자랑찬 실적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갈 드높은 각오로 그들은 불과 5개월만에 방대한 건축공사와 설비조립,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결속하는 놀라운 기적을 또다시 창조하였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지

만 이곳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어버이장군님의 유훈관철투쟁속에서 2년을 주기로 나라의 귀중한 재부, 로동당시대의 창조물을 편이 일떠세우고 우렷한 동음을 터쳐 조국강산을 선군시대의 맛이 나게 율리 변모시키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정으로 심장의 파를 풀일 때 어느 부분에서나 세기를 주름잡는 기적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호화명의 전변은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글 본사기자 리병준  
사진 본사기자 한광명



엄마전 광산의 폴리브렌공장 조업식에 참가하였던 우리는 현실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 금속공학부 학부장 김철호동무를 만날수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과학기술은 강성국가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며 과학기술발전이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3년전 대학에 찾아온 려인인

김책공업종합대학 금속공학부의 교원, 연구사들

자, 기술자들의 실력에 찬사를 금치 못해 하였다.

주제조선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선행부문, 기초조업부문 비롯하여 인민적력 모든 부문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야 합니다.》

공정문에서 우리와 만난 광산 부기사장동무가 수자를 들어 가며 남들은 2년이 걸려야 한다던 대상건축공사를 5개월만에 끝내데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파과자라는 높은 민족자존심을 안고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첨단 초행길을 주저없이 부무당당히 걸어온 학부의 교원, 연구사들의 집체적지혜와 창조적열정을 드려 단련성공이라는 장쾌한 승리로 이어

현대적인 제련소의 조업과 더불어 승리의 신심을 배가한 학부의 교원, 연구사들은 공상 폴리브렌공장건설의 기술준비에 달라붙었다. 금속공정자동화장치의 강화장 장구한, 교원들인 함경련, 변수봉동무들이 현지에 내려와 회견로를 리용한 배송공정을 확립하고 종합적인 조종체계까지 완성하여 전반적인 생산공정을 현대화, 과학화의 수준에 올려세우는데 또다시 큰 기여를 하였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학부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생각했다.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자란 이런 최첨단과제의 《홍길동》들이 어디로진 투쟁들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첨단을 돌파하는 자랑찬 승전고개 높이 울리고있는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방문기

2년과 5개월, 하나의 공장 건설을 이렇듯 짧은 기간에 해체하고 시운전에 이어 조업까지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니 그야말로 조선속도창조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광산일꾼들과 로동계급의 비약의 기상에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우리는 먼저 생산의 첫 공정인 배송공정에 들어섰다. 회견로와 열풍로가 기본으로 되어 정광속의

중요생산공정들을 실시간 감시처리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금속공학부의 실시간으로 감시처리하여 배송공정의 모든 기술지표를 보장한다고 일꾼은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첨단수준의 공장을 조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기계공들의 기능수준이 높은것 같다는 우리의 말에 일꾼은 흔연히 웃으며

중요생산공정들을 실시간 감시처리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금속공학부의 실시간으로 감시처리하여 배송공정의 모든 기술지표를 보장한다고 일꾼은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첨단수준의 공장을 조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기계공들의 기능수준이 높은것 같다는 우리의 말에 일꾼은 흔연히 웃으며

중요생산공정들을 실시간 감시처리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금속공학부의 실시간으로 감시처리하여 배송공정의 모든 기술지표를 보장한다고 일꾼은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첨단수준의 공장을 조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기계공들의 기능수준이 높은것 같다는 우리의 말에 일꾼은 흔연히 웃으며



복합은 조사를 진행하였다. 여러차례 광산을 오가며 현지일꾼들과의 충분한 토의를 거쳐 우리의 실정에 맞게 첨단기술을 도입하라는 제기되는 문제들도 하나하나 확정해나갔다.

짧은 기간에 기술준비가 성과적으로 완료되었고 그에 따라 제련소건설이 본격화되었다.

이 분야에 대한 깊은 과업을 가진 김영일동무가 1년세월 광산로동계급과 협력을 같이하며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갔다.

그 나날 그는 우리의 실정에 맞게 배소로제에 페일보이러를 세로 설치하고 판로망공사를 합력적으로 하는 등 높은 과학적실력과 창조적실력으로 한공정관공정 기술지도실현시켜나갔다.

과학기술적으로 안받침된 그의 문리정리한 주장앞에서 다른 나라의 기술자들도 자기들의 기술적주장을 철회하고 조선의 과학

개성

그들은 제로씨자동차들의 마음을 헤아려 이번 행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깊은 관심을 돌려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현실적인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는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앞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의 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다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 행진단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 나갈



## 전국농근맹일꾼들과 초급선전일꾼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답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명도를 시작하신 54돐을 맞았을 전국농근맹일꾼들과 초급선전일꾼들이 8일부터 16일까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를 진행하였다.

답사자들은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과 보천보혁명전적지, 청봉속영지, 삼지연물가,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백두산3대장군의 영상을 모신 백두산밀영의 모자이크벽화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참가 인사를 드렸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조선혁명의 넘고, 생명으로 간직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안고 답사길에 오른 그들은 먼저 보천보전투가 진행된 려사의 땅에 들어섰다.

보천보전투지휘처, 우편국, 면사무소, 경찰관주재소 등을 돌아보면서 답사자들은 보천보의 참호들에 승리의 총성을 울리시어 인민들에게

의지를 굳게 하였다.

혁명의 성지 백두산밀영을 방문하고 답사자들은 백두산밀영고향집 앞에서 맹세대원을 가졌다.

그들은 항일혁명선렬들의 투철한 수령적 사용위정신을 따라 배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술적으로 진철히 옹위하며 사상교양사업을 개선강화하여 농업근로자들을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알곡공산에 힘있게 불려나가기 위한 사업을 참신하게 벌여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모임이 끝난 다음 답사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시어 항일대전의 총포성을 들으시며 성장하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백두산밀영고향집에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답사사간 그들은 항일유격대대선전선동경연, 문답식학습경연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사업을 하였다.

## 다음주에 진행될 해블컵축구경기 일정

다음주에 진행될 해블컵축구 경기일정은 다음과 같다.

18일 압록강:몽악산 해 블:월미도 판도봉:4.25

19일 봉화산:장수봉 묘향산:소백산

리명수:정 양 경공업성:몽악산 해 블:4.25 압록강:판도봉 월미도:4.25 경공업성:판도봉 해 블:압록강

## 독자의 필지

제가 김성국, 한동환동지를 비롯한 덕천시민민보안서 교통지휘대 인민보안원동지들을 알게 된것은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문득 문득드리는 소리와 함께 우리 집 방문을 열고 낮모를 사람들이 들어섰습니다.

한 평범한 특유영예군인을 위한 그들의 뜨거운 지성은 정말 천형제의 정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이런 훌륭한 인민의 보원원들을 키워준 고마운 우리 당에 감사의 큰결을 드리면서 마음의 군복을 영원히 벗지 않는다는 구약으로 알아본것은 이제부터는 특유영예군인인 저를 천형제처럼 여기고 자주 찾아오겠다고 하면서 저의 집을 나섰습니다.

덕천시 은덕동 11인민반 정 광범

## 로씨야-조선반도종단자동차행진단 개성 통과

그들은 제로씨자동차들의 마음을 헤아려 이번 행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깊은 관심을 돌려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현실적인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는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앞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의 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다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 행진단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 나갈

## 양광대의 사협회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가를로스 알베르두 번두 데 소우사위원장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일본 제국주의를 쳐부시고 조선의 해방을 이룩하시었다. 조국에 돌아가서 그의 위대성을 널리 선전하였습니다.

대표단은 또한 평양 신원 유선중앙연구소, 옥류아동병원, 류경구강 병원 등을 참관하였다.

남아프리카에 갔던 조선건축가동맹대표단 귀국

남아프리카의 더반에서 진행된 국제건축가동맹 제26차 총회에 참가하였던 심영 학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건축가동맹 대표단은 16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10여년세월 근무수행으로 바쁜 속에서도 저의 집을 찾아와 온갖 지성을 다하는 보안원동지들을 보며 우리 집사구들은 물론 동네사람들모두가 인민의 보원원들이 정말 다르다고 감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다.

한 평범한 특유영예군인을 위한 그들의 뜨거운 지성은 정말 천형제의 정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이런 훌륭한 인민의 보원원들을 키워준 고마운 우리 당에 감사의 큰결을 드리면서 마음의 군복을 영원히 벗지 않는다는 구약으로 알아본것은 이제부터는 특유영예군인인 저를 천형제처럼 여기고 자주 찾아오겠다고 하면서 저의 집을 나섰습니다.

덕천시 은덕동 11인민반 정 광범



# 선군령장의 손길은 통일강성국가의 미래를 펼친다

꽃길은 조국해방 69돐을 맞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서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이 땅으로 자꾸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위대한 불멸의 강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호모의 정과 함께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 대한 한없는 경도심이 뜨겁게 분출하고있다.

지금 우리 조국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박행동을 단호히 격파하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에서 자그마한 탈선도 없이 최후승리를 향하여 돌진해나가고있다. 우리 공화국이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용과 존엄을 만방에 떨치며 세계정치흐름을 주도하고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결코 세월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선군혁명의 개척자들이 사며 평등자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안아오신 력사의 필연이며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초강대국강령을 이어가게하시는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선군령도의 결과이다.

하기에 해외의 온 겨레는 백두의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시어 우리 공화국을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범접 못하는 천하무적의 강국으로 유일명령체 주시고 인민의 품과 리상이 현실로 꽃피어나는 사회주의락원도시 빛내주셔서 조국통일의 밝은 앞날을 열어가시는 경에하는 원수님들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은대원수님께서서 한평생 선군혁명영도의 길에 계시면서 쫓아오며 마련해주신 선군의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되 이 땅위에 통일된 강성국가를 일떠세우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탁월한 선군혁명영도로 마련해주신 무진막강한 자위적억제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 나가기 위하여 민족의 존엄을 철옹성같이 수호하고 하루빨리 온 세계가 우리러보는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것이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의 확고한 결심이며 절대불변의 의지이다.

이런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였기에 우리의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제 101(2012)년 대해의 첫머리 찾아오신 곳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선군혁명영도업적에 깃들여있는 조선인민군 군위 서울유적지 105명크사단 이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제위가 그대로 어려있는 무적의 철갑부대를 찾으시여 군위병들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겹고 뜻있는 기습사전을 적으신 경에하는 원수님들의 모습에서 온 겨레는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새겨안으시고 선군혁명의 백승의 력사를 드림없이 계승해나가기려는 그들의 철석의 의지를 절감하고있다.

그해 3월 내외반통일세력이 강행해나간 대규모의 북침합동군사연습으로 하여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었을 때에도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최대위협지대에 위치한 판문점을 시찰하시었다.

위협천만만 최전방초소에서 나간인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김일성동지의 친필비를 오레도록 바라보시며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한평생 온갖 고초와 실패를 다 버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아버지장군님의 영구불멸할업적을 추억깊이 회고하시었다.

이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제국주권과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선군혁명전쟁영도의 력사가 깃들여있는 정전단회의장과 정전협정조인장, 우리 인민의 통일의지가 반영된 판문각과 통일각을 잘 보존관리하여 통일된 조국에서 살

게 될 후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 단행하신 력사적인 관문시찰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념원을 반드시 실현하여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실 확고한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었다.

그 불타는 맹세를 안으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한평생이 어떤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드시고 성스러운 선군혁명영도의 길을 줄기차게 이어가시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전술도, 통일을 동을 새롭게 양양시킬 방향과 방도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선군사상과 업적에서 찾으시였으며 자위적인 국방력의 강화가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업적실현에 지향되도록 이끄시었다.

핵과 미사일을 중추로 하는 우리의 자위적억제력은 반공화국적대세력의 무분별한 군사적도전을 무자비하게 짓부르고 나라이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며 조국통일의 밝은 앞날을 열어나가기 위한 정 의의 수단이다. 강위적인 자위적억제력 위에 평화도 있고 부강번영도 있으며 조국통일도 있다.

핵세력의 온 겨레에게 크나큰 민족적 자부심과 필승의 신심을 북돋아주고 내외반통일세력들에게 준엄한 철퇴를 내린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와 제3차 지하핵시험의 성공은 우리 조국을 존엄높은 강국으로 더욱 빛내주기 위한 경에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영도과 안이온 5천년민족사의 특대사건이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합체력을 물리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영도의 력사가 깃들여있는 정전단회의장과 정전협정조인장, 우리 인민의 통일의지가 반영된 판문각과 통일각을 잘 보존관리하여 통일된 조국에서 살

2013년 3월전원회의의 력사적인 보고는 온 겨레의 심금을 울려잡았다. 제국주의자들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경제건설과 함께 핵무력건설을 절대불변의 로선으로 틀어쥐고 핵억제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것이라는 그날의 선언에서 온 겨레는 위대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념원을 반드시 실현하여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실 확고한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었다.

그 불타는 맹세를 안으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한평생이 어떤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드시고 성스러운 선군혁명영도의 길을 줄기차게 이어가시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전술도, 통일을 동을 새롭게 양양시킬 방향과 방도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선군사상과 업적에서 찾으시였으며 자위적인 국방력의 강화가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업적실현에 지향되도록 이끄시었다.

핵과 미사일을 중추로 하는 우리의 자위적억제력은 반공화국적대세력의 무분별한 군사적도전을 무자비하게 짓부르고 나라이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며 조국통일의 밝은 앞날을 열어나가기 위한 정 의의 수단이다. 강위적인 자위적억제력 위에 평화도 있고 부강번영도 있으며 조국통일도 있다.

핵세력의 온 겨레에게 크나큰 민족적 자부심과 필승의 신심을 북돋아주고 내외반통일세력들에게 준엄한 철퇴를 내린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와 제3차 지하핵시험의 성공은 우리 조국을 존엄높은 강국으로 더욱 빛내주기 위한 경에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영도과 안이온 5천년민족사의 특대사건이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합체력을 물리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영도의 력사가 깃들여있는 정전단회의장과 정전협정조인장, 우리 인민의 통일의지가 반영된 판문각과 통일각을 잘 보존관리하여 통일된 조국에서 살

# 대결의 빔장을 그대로 두고 협력의 문을 열수 있는가

지난 15일 남조선집권자가 《8.15경축사》라는 것을 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그 무슨 《통일준비》에 대한 장광설을 늘어놓으면서 《환경혁명의 통로》니, 《민생의 통로》니, 《문화의 통로》니 하고 《생활공동체의 형성》을 운운하였는가 하면 《태림과 고통의 력사를 극복》하여야 한다고 가사를 떨었다. 한편 분별의 비극이 지속되고 북남관계가 악화일로로 걷히고있는 현실이 마치 그 누구의 《핵위협》에 있는듯이 떠벌리며 《핵개발과 미사일발사》로 《위협》하는것은 《용납되지 않을것》이라고 원소리로 쳤다. 한마디로 말하여 남조선집권자의 《8.15경축사》라는것은 북남관계문제에 대한 독특한 해결책은 없고 종전의 립장을 되풀이한것으로서 실속이 없는 결치, 책임전가로 일관된 진부한것이다.

실제로 《경축사》의 그 어디에도 북남관계문제의 실질적해결을 위한 성의와 진지한 태도가 반영되어있지 않다.

우리는 8.15를 계기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발표하여 남조선당국에 민족분열의 불행과 고통을 끝장내며 북남관계개선의 전향적극을 권유하기 위한 원칙적립장을 천명하였다. 현시국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필수적문제들을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성명은 내외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남조선집권자는 우리의 성명에 대한 대답은 없이 동문서답적으로 《환경, 민생, 문화의 통로》라 휘니 하는 시시결령한 문제들만 들고나왔다.

지금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이 해소되지 못하고 극단으로 치닫고있는것이 과연 《환경, 민생, 문화의 통로》를 열지 못해서인가. 북남관계개선의 근원이 정치군사적대결상태에 있다는것은 누구도 부정할수 없다. 그것을 해소하지 않고 어떻게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실현할수 있으며 화해와 단합, 통일을 지혜하는 법적, 제도적장벽을 허물지 않고 어떻게 대화와 접촉, 배합을 정상화할수 있는가.

남조선에서 한 당국이 출현하여 북과 남이 여러차례 마주앉기도 하고 일련의 인도주의협력사업도 진행되었지만 그것은 끝내 판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바로 첨예한 정치군사적대결이 북남관계개선의 앞길을 가로막고있기 때문이었다. 현실은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남사이에서 어떤 협력도 제대로 할수 없고 판계개선의 문도 열수 없다는것을 명증해준다. 남조선당국이 부당하기 그지없는 《5.24조치》를 계속 유지하고있는것은 동족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의 뚜렷한 표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집권자는 아무런 명분도 없는 《5.24조치》의 해에 대해 전혀 입에 올리지 않았다. 북남협력의 길이 반통일적인 《5.24조치》에 의해 막막해졌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환경, 민생, 문화의 통로》를 열자고 했으니 모순도 이만저만한 모순이 아니다. 남조선집권자가 《경축사》에서 운운한 문제들은 지금과 같이 정치군사적대결이 극한계선에 도달하고있는 형편에서는 그야말로 실현불가능한것이다. 결국 남조선집권자는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초미의 필수적문제들은 외면하면서 저들의 대결정책을 《통일》이라는 귀찮은 말로 포장한 《경축사》를 제멋대에 거위 외웠다. 오죽했으면 남조선 각계 당국자의 《경축사》에 대해 《인권제기연설》,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경축사》라고 비난하였겠는가.

머우기 문제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남조선집권자가 우리의 핵과 미사일을 절고들며 또다시 《위협》타령을 늘어놓은것이다.

지금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위협은 북이 아니라 남에 있다고있다. 북침핵선제공격작전인 《맞출형역제전력》이 정식 적용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작전의 강행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로폭적인 침략위협이며 엄중한 군사적도발이다. 인전에서 곧 아시아경제대회가 열리게 되는 데 그것을 앞두고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의 총포성을 요란스레 울리는것이 평화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말인가.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자위적억제력을 터무니없이 절고드는 온당치 못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으로 대결정책과 외세의 반공화국공조를 합리화하기에는 내외여론의 눈이 너무도 밝다.

북남관계개선의 전향적극을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에서 언급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이것을 거부하는 이 어떤 행위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을 바라지 않는 천만부당한 처사로서 온 겨레의 규탄을 면할수 없다.

최 철 순

최근 우리 조국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박행동을 단호히 격파하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에서 자그마한 탈선도 없이 최후승리를 향하여 돌진해나가고있다. 우리 공화국이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용과 존엄을 만방에 떨치며 세계정치흐름을 주도하고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결코 세월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선군혁명의 개척자들이 사며 평등자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안아오신 력사의 필연이며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초강대국강령을 이어가게하시는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선군령도의 결과이다.

하기에 해외의 온 겨레는 백두의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시어 우리 공화국을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범접 못하는 천하무적의 강국으로 유일명령체 주시고 인민의 품과 리상이 현실로 꽃피어나는 사회주의락원도시 빛내주셔서 조국통일의 밝은 앞날을 열어가시는 경에하는 원수님들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은대원수님께서서 한평생 선군혁명영도의 길에 계시면서 쫓아오며 마련해주신 선군의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되 이 땅위에 통일된 강성국가를 일떠세우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탁월한 선군혁명영도로 마련해주신 무진막강한 자위적억제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 나가기 위하여 민족의 존엄을 철옹성같이 수호하고 하루빨리 온 세계가 우리러보는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것이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의 확고한 결심이며 절대불변의 의지이다.

이런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였기에 우리의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제 101(2012)년 대해의 첫머리 찾아오신 곳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선군혁명영도업적에 깃들여있는 조선인민군 군위 서울유적지 105명크사단 이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제위가 그대로 어려있는 무적의 철갑부대를 찾으시여 군위병들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겹고 뜻있는 기습사전을 적으신 경에하는 원수님들의 모습에서 온 겨레는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새겨안으시고 선군혁명의 백승의 력사를 드림없이 계승해나가기려는 그들의 철석의 의지를 절감하고있다.

그해 3월 내외반통일세력이 강행해나간 대규모의 북침합동군사연습으로 하여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었을 때에도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최대위협지대에 위치한 판문점을 시찰하시었다.

위협천만만 최전방초소에서 나간인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김일성동지의 친필비를 오레도록 바라보시며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한평생 온갖 고초와 실패를 다 버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아버지장군님의 영구불멸할업적을 추억깊이 회고하시었다.

이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제국주권과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선군혁명전쟁영도의 력사가 깃들여있는 정전단회의장과 정전협정조인장, 우리 인민의 통일의지가 반영된 판문각과 통일각을 잘 보존관리하여 통일된 조국에서 살

게 될 후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 단행하신 력사적인 관문시찰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념원을 반드시 실현하여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실 확고한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었다.

그 불타는 맹세를 안으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한평생이 어떤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드시고 성스러운 선군혁명영도의 길을 줄기차게 이어가시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전술도, 통일을 동을 새롭게 양양시킬 방향과 방도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선군사상과 업적에서 찾으시였으며 자위적인 국방력의 강화가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업적실현에 지향되도록 이끄시었다.

핵과 미사일을 중추로 하는 우리의 자위적억제력은 반공화국적대세력의 무분별한 군사적도전을 무자비하게 짓부르고 나라이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며 조국통일의 밝은 앞날을 열어나가기 위한 정 의의 수단이다. 강위적인 자위적억제력 위에 평화도 있고 부강번영도 있으며 조국통일도 있다.

핵세력의 온 겨레에게 크나큰 민족적 자부심과 필승의 신심을 북돋아주고 내외반통일세력들에게 준엄한 철퇴를 내린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와 제3차 지하핵시험의 성공은 우리 조국을 존엄높은 강국으로 더욱 빛내주기 위한 경에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영도과 안이온 5천년민족사의 특대사건이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합체력을 물리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영도의 력사가 깃들여있는 정전단회의장과 정전협정조인장, 우리 인민의 통일의지가 반영된 판문각과 통일각을 잘 보존관리하여 통일된 조국에서 살

2013년 3월전원회의의 력사적인 보고는 온 겨레의 심금을 울려잡았다. 제국주의자들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경제건설과 함께 핵무력건설을 절대불변의 로선으로 틀어쥐고 핵억제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것이라는 그날의 선언에서 온 겨레는 위대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념원을 반드시 실현하여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실 확고한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었다.

그 불타는 맹세를 안으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한평생이 어떤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드시고 성스러운 선군혁명영도의 길을 줄기차게 이어가시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전술도, 통일을 동을 새롭게 양양시킬 방향과 방도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선군사상과 업적에서 찾으시였으며 자위적인 국방력의 강화가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업적실현에 지향되도록 이끄시었다.

핵과 미사일을 중추로 하는 우리의 자위적억제력은 반공화국적대세력의 무분별한 군사적도전을 무자비하게 짓부르고 나라이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며 조국통일의 밝은 앞날을 열어나가기 위한 정 의의 수단이다. 강위적인 자위적억제력 위에 평화도 있고 부강번영도 있으며 조국통일도 있다.

핵세력의 온 겨레에게 크나큰 민족적 자부심과 필승의 신심을 북돋아주고 내외반통일세력들에게 준엄한 철퇴를 내린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와 제3차 지하핵시험의 성공은 우리 조국을 존엄높은 강국으로 더욱 빛내주기 위한 경에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영도과 안이온 5천년민족사의 특대사건이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합체력을 물리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영도의 력사가 깃들여있는 정전단회의장과 정전협정조인장, 우리 인민의 통일의지가 반영된 판문각과 통일각을 잘 보존관리하여 통일된 조국에서 살

최근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이 해소되지 못하고 극단으로 치닫고있는것이 과연 《환경, 민생, 문화의 통로》를 열지 못해서인가. 북남관계개선의 근원이 정치군사적대결상태에 있다는것은 누구도 부정할수 없다. 그것을 해소하지 않고 어떻게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실현할수 있으며 화해와 단합, 통일을 지혜하는 법적, 제도적장벽을 허물지 않고 어떻게 대화와 접촉, 배합을 정상화할수 있는가.

남조선에서 한 당국이 출현하여 북과 남이 여러차례 마주앉기도 하고 일련의 인도주의협력사업도 진행되었지만 그것은 끝내 판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바로 첨예한 정치군사적대결이 북남관계개선의 앞길을 가로막고있기 때문이었다. 현실은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남사이에서 어떤 협력도 제대로 할수 없고 판계개선의 문도 열수 없다는것을 명증해준다. 남조선당국이 부당하기 그지없는 《5.24조치》를 계속 유지하고있는것은 동족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의 뚜렷한 표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집권자는 아무런 명분도 없는 《5.24조치》의 해에 대해 전혀 입에 올리지 않았다. 북남협력의 길이 반통일적인 《5.24조치》에 의해 막막해졌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환경, 민생, 문화의 통로》를 열자고 했으니 모순도 이만저만한 모순이 아니다. 남조선집권자가 《경축사》에서 운운한 문제들은 지금과 같이 정치군사적대결이 극한계선에 도달하고있는 형편에서는 그야말로 실현불가능한것이다. 결국 남조선집권자는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초미의 필수적문제들은 외면하면서 저들의 대결정책을 《통일》이라는 귀찮은 말로 포장한 《경축사》를 제멋대에 거위 외웠다. 오죽했으면 남조선 각계 당국자의 《경축사》에 대해 《인권제기연설》,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경축사》라고 비난하였겠는가.

머우기 문제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남조선집권자가 우리의 핵과 미사일을 절고들며 또다시 《위협》타령을 늘어놓은것이다.

지금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위협은 북이 아니라 남에 있다고있다. 북침핵선제공격작전인 《맞출형역제전력》이 정식 적용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작전의 강행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로폭적인 침략위협이며 엄중한 군사적도발이다. 인전에서 곧 아시아경제대회가 열리게 되는 데 그것을 앞두고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의 총포성을 요란스레 울리는것이 평화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말인가.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자위적억제력을 터무니없이 절고드는 온당치 못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으로 대결정책과 외세의 반공화국공조를 합리화하기에는 내외여론의 눈이 너무도 밝다.

북남관계개선의 전향적극을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에서 언급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이것을 거부하는 이 어떤 행위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을 바라지 않는 천만부당한 처사로서 온 겨레의 규탄을 면할수 없다.

최 철 순

# 괴뢰군내 폭행살인만행의 주범인 김관진역도는 분노한 남조선민심의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서기국 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의 야당을 비롯하여 남조선의 사건의 주범인 당시 괴뢰국방부 장관이었던 최와대 안보실장 김관진역도를 기고하는 보도 제1072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최근 남조선괴뢰군내에서 유일명령체단폭행 및 살인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숨겨졌던 각종 살인만행과 인권유린행위 가 많이 폭로되어 날이 갈수록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며 세인을 경악케 하고있다.

남조선인론들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한해에만도 괴뢰군내에서 각종 기합과 집단구타로 하여 4만 5 000여명 이상을 징징차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 000여명이 탈영하였으며 그 중 무기와 총탄, 수류탄까지 휴대하고 탈영한자는 700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괴뢰군사들이 폭행에 걸리지 못하여 매일 같이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는데 이러한 자살자까지 괴뢰군 전체 사망자의 70%를 차지하고있다

고 한다.

지금 남조선의 야당을 비롯하여 남조선의 사건의 주범인 당시 괴뢰국방부 장관이었던 최와대 안보실장 김관진역도를 기고하는 보도 제1072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최근 남조선괴뢰군내에서 유일명령체단폭행 및 살인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숨겨졌던 각종 살인만행과 인권유린행위 가 많이 폭로되어 날이 갈수록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며 세인을 경악케 하고있다.

남조선인론들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한해에만도 괴뢰군내에서 각종 기합과 집단구타로 하여 4만 5 000여명 이상을 징징차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 000여명이 탈영하였으며 그 중 무기와 총탄, 수류탄까지 휴대하고 탈영한자는 700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괴뢰군사들이 폭행에 걸리지 못하여 매일 같이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는데 이러한 자살자까지 괴뢰군 전체 사망자의 70%를 차지하고있다

최까지 활악하게 하다 못해 집단적으로 때려눕히는 잔인 미문의 야수의 무리, 페를레의 강제노동으로 더욱 전락되었다.

2011년 괴뢰해병대 총기탄사 사건으로부터 유일명령체단폭행사건에 이르기까지 온 남조선 상황에 커다란 충격을 몰아온 괴뢰군내에서의 대형참사들은 모두 김관진역도가 국방부 장관명령지시를 쓰고 저지른 사건들이다.

남조선 각계에서 김관진역도의 책임을 묻는것은 너무도 당연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와대는 괴뢰군안보실장들의 주범인 김관진놈을 처벌하기는커녕 감싸들면서 분노한 민심을 녹여보려고 별의별 오그람수를 다 쓰지 않았다.

김관진역도와 같은 살인마를 최와대 안보실장으로 들여얏고 치마폭에 싸안고있는 현정권이야말로 《인권발살정권》, 《살인정권》이다.

최와대 지금과 같이 김관진역도를 그냥 기고한다면 자기의 얼굴에 계속 면적을 하게 될것은 물론 괴뢰군내에서의 함축한 인권유린만행도 날로 더욱 비호조치의 필적이며 보다 심화될것이다.

민심은 천심이고 민심을 거역하는 자 천벌을 면치 못한다.

남조선의 각계층은 괴뢰군내 폭행살인만행의 주범인 김관진놈을 민심의 이름으로 단단히 저지르자 할것이다.

# 인권재판정이 《피고》 미국을 가다린다

## 최근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놓고 9.11사건정황 혐의자들을 고문한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다.

세계면전에서 인권유린의 왕조로서의 물골을 미국이 스스로 드러낸것은 자초는 평가할만 하다.

그러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미국의 인권유린범죄는 이미 세상에 드러날대로 드러나 별로 새삼스러웠지 못했다.

세계도처에서 감행되고있는 미국의 인간살육만행에 대해 멀거하자면 끝이 없다. 다름없는 다 그만두고 판관마오에 대한 근거지각을실태만 보자.

판관마오미해군기감옥은 오늘 중세기적인 고문장, 인권괴상으로서 미국의 정체를 여지없이 폭로해주는 대명사로 되고 있다. 새 세기에 들어와 미국이 감옥의 수감자들에게 가한 고문은 지난 세기 파시스트들이 감행한 범죄에 못지 않은것이다. 미국방성의 자료에 의하면 이곳에는 수백명의 《메르》형의자들이 감금되어있었으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몇년동안 판결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인체실험만행이 거러짐이 감행되고있는 곳도 바로 판관마오이다. 아무런 법적소속도 재판도 없이 종신히나 다름없는 감금소로 하여 수감자들은 극도의 절망상태에 빠져있다.

미국은 판관마오미해군기감옥에서 고문을 반대하여 수감자들이 단식농성을 한다고 하여 완전무장한 미군병사들을 내몰고 그들을 의자에 꿰어놓고 쿡구멍에 호스를 밀어넣는 방법으로 강제급식을 시키는 범죄도 저지르고있다.

공인된 국제법에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는 고문은 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도 억류자의 전쟁포로들을 인도주의적으로 대우하고 보호하며 그들을 죽게 하거나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러한 행위를 강행했을 때에는 엄중한 범죄로 인정하고 법적 제재를 가할것을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반테러전》의 간판위에 미국은 공인된 국제법과 전쟁법규들을 관용하게 유린하면서 무한한 사람들에게 《테러분자》혐의를 씌워 재판도 없이 몇년간 가두어놓고 참기 어려운 고문을 들이대고있다. 이런 극악무도한 인권유린범죄가 문명을 자랑하는 오늘날의 세계에 거러짐이 감행되고있는것 자체가 인류의 수치가 아닐수 없다. 인권존중을 요구하는 인류에 대한 이보다 더한 도전, 모독이 어디에 또 있었는가. 국제사법정은 이미전에 판관마오미해군기감옥을 현대판감옥수용소로 판정하였다.

미국집권자가 늦게나마 수감자들에게 대한 고문만행을 자인한것은 세계면에서 흉악한 인권유린왕조로서의 저들의 머리를 물골을 내는 감금소 있게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인정했음과 불과하다.

문제는 오바마가 세계도처에 널려있는 비밀감옥들을 모두 없애겠다는 선거공약을 내걸었지만 지금까지도 그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데 있다.

요즘 미국은 세계도처에 설치한 비밀감옥들과 관련한 보고서발표문제를 두고 물머리를 앓고있다. 미국은 날로 커가는 국제적압력에 물러워 비밀감옥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할것처럼 너스레를 떨어왔다. 그러나 비슷한 보고서가 발표되는 경우 중동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게 될것이 두려워 해

당 나라 주재 자국대사관들에 대한 안전보장대책을 강화하고있다.

동맹국들에 대한 친화도청정취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규탄과 배격을 받아 동맹국신세가 되고있는 미국은 비밀감옥문제까지 공개를 꺼리는 경우 더 큰 국제적비난이 쏟아져 나올까봐 전전긍긍하고있다.

정체불분자들이 피해당상층에 걸려 이러저러지도 못하고있는 미국의 처지야말로 로반의 꼬리를 잡은 격이라고 야유, 조소하고있는것은 우연치않은 일이다.

《인권존중의 본보기》라고 자처하던 미국이 풀썩거 되었다.

국제무대에서 아마 미국만큼 《인권옹호》를 열심히 부르는 나라는 없을것이다. 그들은 유엔무대에서까지 주재국에 《인권옹호》를 제창하면서 《국제인권재판관》행세를 골라하고있다. 하지만 저속세력을 원상케 하는 비밀감옥들을 다른 나라에 설치하고 수감자들에게 대한 고문, 살인만행들을 버찌어 감행하고있는 미국은 입이 열려라도 《인권발살정권》의 정체를 감출수 없다.

인권유린왕조의 정체가 여지없이 드러난 조건에서 미국이 이제 더는 다는 나라들에 대해 감히 《인권》이 이렇소저렇소 할 체면이 없다. 미국이 앞으로도 《인권옹호자》의 행세를 한다면 그것은 인권존중을 선차적요구로 내세우는 세계민심에 대한 로폭적인 도전,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 될것이다.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제법도, 세계인권 선언도 무시하고 세상이 좁다하게 돌이켜 감행하고있는 미국의 인권유린행위는 반인륜범죄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미국은 세계인권재판정의 피고서에 스스로 나왔어야 마땅하다.

리 현 도

인도네시아의 아름다운 도시 반둥은 꽃의 도시로 널리 알려져있다.

높고 험한 산들로 에워싸여있는 반둥시는 해발 700m의 높은 지대에 자리잡고있다.

1년내내 날씨가 서늘하고 공기가 맑은 이 도시는 인도네시아의 이름난 피서지로, 관광객이 모여들어 활기차게 되고 있다.

꽃의 도시 반둥

대식물원가운데서 세계 첫자리를 차지한다.

오늘도 아름답게 피어나고있는 김일성화는 바로 이곳 보고 리식물원에서 육종되었는데 그 후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의 전 대통령 수카르노는 류타에서 아름답고 고상한 정서를 지니는 이 진귀한 꽃에 세상에 가장 빛나고 영생하는 이름을 지으려는 자국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존함을

이 무성하다.

꽃이 사람들을 이 도시를 꽃의 도시로 부르고있다.

꽃의 도시 반둥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는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인도네시아의 피서지인 이리다다라가 매우 아름다운 우머 규모와 시설에 있어서 열로 되어있어 명절이나 휴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휴식의 한때를 보내려고 이곳으로 찾는다.

반둥회를 기념하여 명명한 아시아-아프리카거리 향목의 인도네시아는 열대나무들이 즐비하게 들어서있다.

반둥시교외에는 산밭들이 기복을 이루고있고 산에는 나무들

아프리카를 생활하기 위한 대국들의 각종 전이 치열해지고있다.

일단히 미국에서 미국-아프리카 수뇌자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런 회의에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나라 지도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 미국은 아프리카 대륙과의 경제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3 0 0억USS를 투자하겠다는 뜻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오바마는 아프리카에 대한 무역과 투자를 추동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의 기업활동에 관한 대통령자문리사회를 내오기도 하였다.

오바마는 이번 회의가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그들의 영향력을 되찾고 이 대륙에서 확대되는 다른 대국들의 세력권을 막기 위하여 중요목적이 있다는것을 숨기지 않았다.

지난 시기 미국은 아프리카 대륙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경제장

# 아프리카를 둘러싼 대국들의 각축전

성의 고무추동하겠다는니,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니 뉘니 하는 소리를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원조》와 《협조》에 대해 떠들어대었다.

하지만 이것은 아프리카대륙을 장악물체하며 식민지주의 지배를 실현하려는 식민주의적 속심을 가리우기 위한 기만술책에 불과하였다.

미국은 아프리카의 원료자원을 헐값으로 빼앗아가고 이 지역 나라들로부터 수입하는 제품들에 까다로운 조건부를 붙이려는 가하면 저들의 말할 줄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였다.

이로 하여 미국은 아프리카에서 배척을 받고 밀려나기 시작하였다.

다른 나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로씨야는 최근년간 아프리카

의 천연자원개발에서 자기의 지위를 확대하기 위해 눈에 띄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8개의 큰 로씨야회사가 4 0건의 계획을 리행하고 있다.

유럽동맹은 지난 4월 두 대륙사이의 협조물체를 확대할 목적으로 브뤼셀에서 4 0여 개 아프리카나라와 2 0여 개 유럽나라의 국가수반들과 판례이 참가하는 제 4 차 유럽동맹-아프리카수뇌자회의를 진행하였다.

아프리카나라 지도자들이 참가하는 대규모적인 수뇌자회의가 국제 각국에서 빈번히 진행되는 속세 국제적으로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아프리카와의 협력관계가 강화되고있고 이것은 미국을 매우 불안케 하고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지난 시기

모든 수단을 다하여 아프리카의 연료 및 광물자원에 접근할수 있는 권리를 위해 싸움을 벌였어이라는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풍부한 자연부원을 가지고있는 아프리카나라들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되 취급하는 가 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대륙의 안정과 발전은 그 누가 선사하지 않는 다. 아프리카의 인구는 오직 대륙인민들 자신이다.

지금 아프리카나라들은 지역의 일체화와 독자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나아가고있는데 다른 대륙나라들과의 협조에서 진실과 거짓, 나라의 실정을 맞는것과 맞지 않는것을 구분하여 자기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김 철 룡

# 일본정객들의 집단적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 논란

일본에서 15일 페망일을 계기로 국유인정객들이 집단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놀음을 벌여놓았다.

이날 집권자가 야스쿠니 신사에 제물비를 낸데 이어 총무상과 국가공안위원장, 행정개혁당장을 비롯한 내각각료들이 신사를 참배하였다.

일본정객들의 이러한 행동은 침략력을 로폭적으로 미화분식하는 망동으로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아내고 있다.

# 이스라엘군의 폭압만행

우루파이정부 가 7월 31일 성명을 발표하여 가자지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략행위를 규탄하였다. 성명은 녀성들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감행되는 이스라엘의 대량살륙만행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영국의 런던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9일 반이스라엘시위를 벌여졌다. 시위에는 반전단체

# 규탄

영국의 살륙만행을 비난하였 다. 그는 이스라엘의 군사공격으로 가자지대에서 적수공민들의 수많은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고있는데 대해 인문하였다. 적들은 미대한 목숨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가자지에서 벌어지고있는 유태침략을 끝장내기 위해 편대를 강화할것을 모든 이슬람교도들에게 호소하였다.



프랑스에서 반이스라엘 시위

# 로씨야 나라들 협조

여러 나라들 협조 로씨야와 에리트레아 12일 무역 및 군사분야에서 두 나라사이의 협조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는 에리트레아 대통령의 로씨야 방문과정에 이루어졌다. 이에 앞서 10월 월남과 라오스는 경제, 문화, 안전, 국방분야에서 쌍무협조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